

GYEONGNAM

2009.01 VOL.003

MECENAT

기업과 문화예술의 아름다운 동행



경남메세나협의회

위기는 변화의 또 다른 기회입니다.

경남메세나협의회가 위기극복을 위한 창조경영, 문화경영을 지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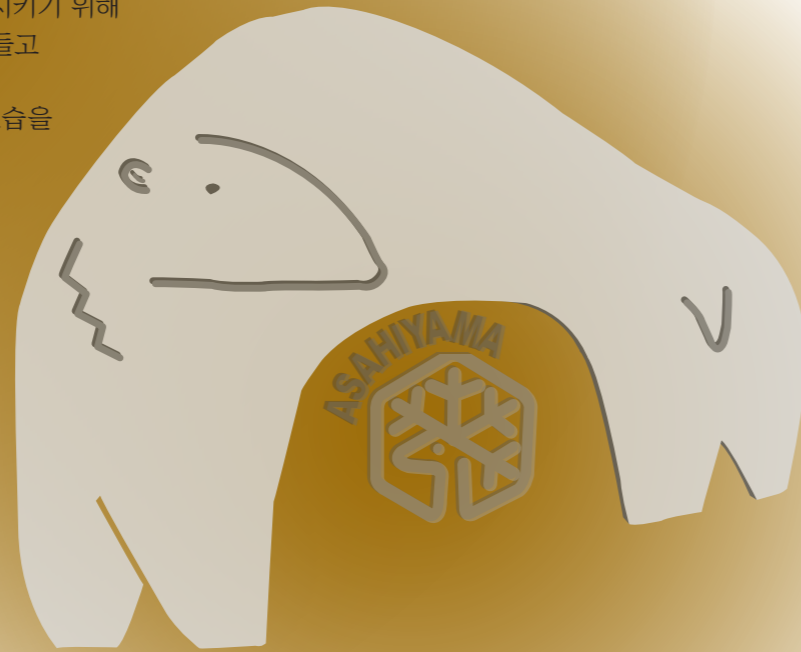
"펭귄을 날게하라"

폐쇄위기에 처했던 동물원이 전 세계 관광객이 모여드는 국제적인 관광명소로 변신한 이유는?

'재미없다'는 동물원을 '재미있는' 곳으로 변신시키기 위해 하늘이 보이는 수족관에서 펭귄이 헤엄치게 만들고 '밤의 동물원'을 만드는 등 다른 어떤 동물원과도 뚜렷하게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준 아사히야마 동물원.

이들의 창의력과 상상력은 꿈을 심어주는 동물원을 만들었고 고객에게 새로운 감동과 가치를 주었습니다.

모두가 힘들다는 2009년! 창의력과 신바람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이루어 갑시다. 위기는 변화의 또 다른 기회입니다.



경남메세나협의회와 함께 하시면

- 문화예술행사 지원 등 문화컨설팅 서비스 제공
- 문화마케팅 세미나 등을 통하여 기업의 창조경영, 문화경영 지원
- 메세나 매거진 및 언론을 통한 회원기업의 메세나 활동 홍보
- 경남메세나협의회는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이므로 회비나 문화예술단체 결연 지원금은 물론 기타 문화예술단체 지원금도 지정기부금 처리로 세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법 인 : 연간 순이익의 5%까지 손비 인정
- 개 인 : 연간 소득금액의 15%까지 소득공제

가입방법	▶ 입회신청서 1부 제출
연 회 비	▶ 기 업 : 연 2백만원 이상 ▶ 개 인 및 문화예술단체 : 연 1백만원 이상

Contents



- 04 휴(休)
- 06 신년메시지
- 08 2008 경남메세나대회 스케치
- 10 2008 경남메세나대회 수상기업
- 18 메세나 갤러리
- 26 문화송년회
- 30 메세나 칼럼
- 32 예술의 희망이야기
- 34 기업과 예술의 만남
- 36 문화와 나
- 38 2008 경남메세나 사업보고

햇살에게

-성선경

내가 그대에게 바라는 것은

아침 거울 같은 눈웃음 한 번

그저 들꽃들을 대하듯 웃어주는 것뿐이네

내가 그대에게 바라는 것은 엔 분의 일

손수건같이 가볍게 마음 흔들어주는 것뿐이네

바람이 불거나 흐린 날에도

간혹 얼굴 한 번 보여주는 것뿐이네

뇌성이 일고 비가 내려도

내가 할 일은 기다리는 것뿐

더 키 큰 해바라기가 되거나

더 향기로운 꽃이 되는 것은 아니네

내가 그대에게 바라는 것은

연잎의 이슬같이 잠시 눈길 한 번 주는 것

그저 아침인사같이 웃어주는 것뿐이네

나뭇잎의 어깨를 툭 치고 지나가는 바람같이

마음 한 번 가볍게 흔들어주는 것뿐이네

봄 들판에 나섰다가 문득 만난 늙은 염소에게처럼

담배 담배 담배 불러주는 것뿐이네

저 햇살에게 내가 바라는 것은

그저 엔 분의 일.

■성선경 : 1960년 경남 창원 출생. 1988년 한국일보 신춘문에 〈바둑론〉 당선. 현재 마산무학여자고등학교 교사로 재직중이며, 〈文靑〉 동인 〈서정과 현실〉 편집주간으로 활동. 2008년 제20회 경남문학상 수상. 시집으로 〈널뛰는 직녀에게〉, 〈옛사랑을 읽다〉, 〈서른 살의 박봉씨〉, 〈몽유도원을 사다〉, 〈모란으로 가는 길〉이 있다.



“문화예술이 가진 상상력과 창의력은 어려운 때일수록 한마음 한 뜻으로 뭉칠 수 있는 활력소가 되어줄 것이며, 새로운 희망과 창조의 원동력이 되어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될 것입니다.”

“기회를 희망으로 바꾸어 잡시다”

모두들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힘든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곧 기회라고 합니다. 새해에는 위기라고 움츠려 있기보다 기회를 희망으로 바꾸는 새로운 변화를 꿈꾸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소극적인 방법으로 대응하기보다 창의적 방법으로 새로운 길을 모색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앞으로의 시대를 '이야기, 이미지, 감성이 중요시 되는 문화의 시대'로 정의하면서 '국가, 기업, 개인 등도 경쟁력의 원천이 기술적인 힘보다 문화적인 힘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즉 21세기 기업의 경쟁력은 이성과 감정의 이분법을 벗어나 감정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용하는가에 의해 결정됩니다. 기업경쟁은 이제 원가절감, 수율과 같은 양적 경쟁에서 벗어나 창의성 경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창의성이라고 하면 너무 추상적으로 느껴지지만 사실 창의성이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를 해결하려는 도전 의식과 필사적인 자기 투쟁의 과정에서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민족에게는 위기 때마다 혁신적인 도전과 발상으로 이를 훌륭하게 극복해온 창의적인 유전자가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신명이 나면 누구도 상상 못할 기적을 이루어내던 우리 자신에 대한 믿음을 꺼내야 할 때입니다.

이런 신명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힘은 바로 문화예술이 가진 상상력과 창의력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화예술은 어려운 때일수록 한마음 한 뜻으로 뭉칠 수 있는 활력소가 되어줄 것이며, 새로운 희망과 창조의 원동력이 되어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될 것입니다.

2009년에도 우리모두 한마음으로 더욱 아름답고 행복한 문화경남, 창의력이 살아 숨쉬는 기업을 가꾸어 나가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2009년 1월

경 남 메 세 나 협 의 회 장
경남은행장 문 동 영



기업과 문화예술이 만나는 축제의 한마당 2008 경남메세나대회

2008년 경남메세나대회가 12월 4일 오후 창원시 중앙동 인터내셔널호텔 5층 그랜드 볼룸에서 열렸다. 경남메세나회원 기업들과 문화예술단체 대표 등 3백여명이 참석해서 성황을 이루었다. 지난 1년동안의 메세나활동을 정리평가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찾는 자리인 메세나대회에서는 특별강연을 비롯해서 기업과 예술의 만남 결연식, 경남메세나상 시상식, 경남챔버쏘사이어티의 축하공연 등이 이어졌다. 또 본 행사에 앞서서 행사장 로비에는 메세나 갤러리가 꾸며져서 벽면을 타고 붙여진 각 회원 기업들의 메세나활동을 담은 사진을 보며 서로 확인도 하고 흐뭇하게 웃음 지을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져 눈길을 끌었다.

이주현 미술평론가의 특강인 “CEO를 위한 미술과 창의력 세계”에서는 21세기 문화가 경쟁력이 되는 시대에 갖추어야 할 필수요건인 상상력과 창의력의 본질을 미술의 창을 통해 알렸으며 또한 남다른 창의력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한 CEO들의 사례를 보여주어서 기업경영에 필요한 창조적 아이디어 고양과 활용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경남에너지(주)의 이병철 대리는 “어릴 때 미술시간에 좀 더 열심히 들었으면 지금 후시 사장이 되어 있는 것 아닐까요?” 하며 강의 들은 소감을 유머러스하게 표현했다.

경남메세나의 활동을 소개한 동영상 홍보시간은 일년동안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 한 눈으로 볼 수 있는 자리였다. 문동성 경남메세나협의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경남메세나협의회는 기업이 문화예술을 통한 창조경영으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어 나가는데 디딤돌 역할을 할 것”이라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고, 김태호 경남도지사는 조윤명부지사가 대독한 축사에서 “메세나활동을 통해 문화경남의 이미지를 높여준 기업회원께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유인촌 문화체육부 장관은 서면으로 보낸 축사에서 “이렇게 어려운 시기일수록 문화예술의 역할이 더 큰 진가를 발휘할 것”이라며 기업의 문화예술부문 지원을 당부했다.

기업과 예술의 만남 결연식에서는 세 팀이 신규로 결연했다. 이날 결연팀으로는 (주)미래산업과 창원 큰들, (주)세진 경남지점과 대한전통예술보존회경남지회, 인산죽염촌(주)와 김해필하모닉오케스트라이다. 이로써 경남메세나협의회는 총 29쌍에 달하는 기업과 문화예술단체가 결연해서 상호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경남메세나상 시상식 순서에서는 먼저 합포문화동인회 회장인 조민규 심사위원장은 “처음 시상하는 경남메세나상만큼 학계와 언론계, 문화예술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신중하고 세밀하게 검토했다”고 보고했다. 가장 관심이 모아졌던 경남메세나 대상은 지난 한해 동안 메세나활동에 가장 크게 공헌해왔던 기업에게 시상하는 것으로 STX조선(주)가 수상했다. 대상을 받은 STX조선(주) 강쌍원 본부장은 “먼저 심사위원께 깊이 감사드리며 세계경제위기속에 문화예술을

통한 창조경영으로 경제위기 돌파에 앞장 서겠다”고 소감을 피력했는데, STX조선(주)는 지역사회 구성원의 행복과 회사의 성장이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경영마인드로 문화예술을 활용해 차별화된 기업경쟁력을 만들어 온 공로로 대상을 수상했다. 문화경영상은 경남에너지(주)가 수상했는데, 지역토착기업으로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메세나활동을 시작, 여성교양강좌와 어린이미술대회의 지속적인 개최 등 각 문화예술분야에 골고루 지원한 메세나활동과 독서경영을 통한 창조적 문화경영이 큰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메세나인상에는 조성계 원광종합건설(주) 대표이사가 지역문화예술활동과 환경보호에 기여도가 높아 수상했는데 수년동안 마산봉암갯벌을 촬영해서 자연환경을 담은 사진집을 발간하고 전시회를 열었다.

그 외 창의상에는 창원에 있는 창원서울 이비인후과병원이, 지역문화공헌상에는 함양군에 있는 인산죽염촌(주)가, A&B상에는 청아의료재단과 경남프리모양상블, 경남약사회와 경남시조시인협회가 받았다. 문화예술영재상에는 연극부문에 경기대 1학년 현예림양이, 판소리부문에는 경남예고 남지원양이 수상했다. 이렇듯 경남메세나상은 대상을 비롯해 7개부문 11개 기업과 개인이 수상하는 영광을 누렸다.

이어진 축하공연에서는 경남챔버쏘사이어티가 출연해 모차르트와 스트라우스, 브람스의 곡들을 연주했으며 바리톤 이종훈과 소프라노 신동숙이 가곡을 노래해 문화와 기업의 아름다운 동행 자리를 차분한 음악으로 채워주었다.

본행사 후 이어진 만찬에서는 서로 축하하며 덕담을 주고받는 자리도 마련되었다. 진해미술협회 김다순 지부장은 “강좌를 통해 새로운 정보를 얻게 되어서 좋고 대접만 받고 가는 느낌이어서 죄송하고 우리같은 단체들이 더 노력해야 할 것 같다”며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도 함께 전하기도 했다.

기업과 문화예술의 만남의 장인 경남메세나협의회 2008 경남메세나대회는 짧은 기간이지만 빠르게 자리를 잡고 깊이를 더해가는 메세나협의회 회원기업과 단체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다음활동에 설레게 되는 멋지고 아름다운 행사였다.

대상 **stx**조선

고속성장신화의 숨은 비밀 문화예술 활용한 차별화된 문화경영

STX조선(주)는 지역사회구성원의 행복과 회사의 성장이 불가분의 관계라는 경영철학 아래 지역문화예술 활동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동시에 기업경영에 문화예술을 활용해서 차별화된 기업 경쟁력을 만들어나가는 점을 인정받아 2008경남메세나상 대상을 수상했다.



| 대표이사 정 광 석 |

문화송년회 등 즐거운 기업문화조성

STX 임직원과 가족들은 매년 특별한 연말선물을 받는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직원들의 일체감 형성은 물론 직원가족들과 자녀들까지도 뜨거운 반응을 보이는 '문화송년회' 선물이다. 2007년에는 정조대왕을 소재로 한 창작 뮤지컬 '화성에서 꿈꾸다'를 관람했고, 2008년에도 성산아트홀을 사흘간 통째로 빌려 유니버설 발레단의 '호두까기 인형' 발레를 관람했다.

뿐만 아니라 회사에서 클래식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사내음악회', 젊은 세대 직원들의 관심사를 반영하는 '사내 e스포츠대회'를 개최하기도 하는 등 무엇보다 즐거운 기업문화 가꾸기에 노력한다. 직원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문화경영은 즐거운 일터문화를 만들게 되고 이것이 경영목표 달성으로 이어진다는 논리다.

문화경영은 기업 이미지를 관리하는데도 중요하다. 소비자를 포함한 현대인들이 기업을 평가할 때 매출이나 수익보다는 평소 갖고 있던 이미지를 더 중요시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어서 그 무형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기업내부 분위기, 즉 기업문화라는 것이다. 경기침체로 직원들 마음에도 찬바람이 불고 있지만 회사에서는 직원들 마음을 더 따뜻하게 보듬는 문화감성경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기존의 사내음악회나 문화송년회, 세대를 아우른 동아리활동들 외에도 새롭게 'STX조선 합창단' 편성도 계획중이다.

지역민의 행복을 위한 적극적인 문화예술지원

지역내에 기반을 둔 대기업으로서 지역내에서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에 가장 적극적인 기업이다. 수도권에 비해 문화예술부문 발전이 늦은 지역현실에서 경남지역의 각종 문화예술단체나 행사를 적극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진해 균형제기간동안 펼쳐지는 진해관악축제페스티벌을 비롯해서 진해지역 특화축제에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경남메세나협의회를 통해 지역내의 두개 예술단체(경남 팝스 오케스트라, 아르기 챔버 오케스트라)와 결연해서 교류협력을 추진하고 있고 계열사와 협력업체들의 회원가입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역메세나운동에도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메세나활동을 통해 지역문화예술의 저변 확대에도 기여하고 기업 이미지도 제고하며 임직원이 지역문화예술을 접촉할 수 있는 기회도 높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FA컵 대회에서 준우승을 한 경남도민프로축구단의 메인스폰서이기도 한 STX조선(주)는 몇 년동안 STX 그룹 계열사 직원단체 응원행사인 '경남 FC와 함께 하는 STX-DAY'를 연 1,2회 추진하고 지난해는 특히 'STX골'을 만들어서 홈 경기 활성화를 이루는 등 지역의 체육발전과 축구 붐 조성에도 기여도가 높았다.

가족봉사단을 통한 나눔활동

또 하나 STX복지재단을 통한 여러 지역봉사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인데 2006년에 만들어진 복지재단을 통해 소외계층의 주거환경개선이나 산재근로자 지원, 다문화 가정 지원 사업과 희망 나눔 장학활동 등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펼치고 있다. 그 중 특히 지난해에는 소외계층 주택 신축과 개보수활동인 '나눔의 집'행사로 주택 신축5채, 개보수 사업은 100여가구를 시행했고 연말에는 진해시 명동에 '나눔의 집' 5호점을 열어서 어르신들의 눈물어린 고마움의 표현이 직원들의 가슴을 적시기도 했다. 국내최초 다문화 어린이 도서관 문을 열기도 했고 이주 여성 친정방문행사(베트남)를 지원하고 아름다운 가게77호 창원 중앙점 개점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활동들이 빛났다.

STX조선(주)를 키우고 무제한의 속도로 굴러가게 하는 힘의 원천은 두 가지! 기업의 경영마인드 자체가 지역에 기업이익을 문화예술활동이나 봉사활동으로 되돌려 주어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이 첫째이고 크든 작든 주어진 여건속에서 회사가 문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면 그것을 기꺼이 즐기며 창조적인 에너지로 만드는 직원들의 지혜로움이 어우러지는 것이 그 두 번째다. 무엇보다 함께 하는 문화예술이야말로 가장 고귀한 문화 나눔활동이라고 생각하는 기업의 마인드에 앞으로도 큰 기대를 걸어 보게 한다.



사람 향한 마음이 진짜 에너지 지역문화발전의 디딤돌 되는 창조적 문화경영

창원시 웅남동에 있는 경남에너지(주)! 이번 경남메세나대회에서 문화경영상을 수상했다. 지역의 토착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메세나활동을 시작했고 문화예술활동이나 단체들을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 지원하거나 키우지 않고 각종 문화예술활동과 단체에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애쓴 메세나활동방향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지역문화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

임직원 모두가 함께 문화경영을 한다는 자부심이 넘치는 곳, 경남에너지(주)! 1996년부터 시작된 어린이미술대회는 매년 3천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참여하는 지역대표행사로 에너지를 공급하는 기업이지만만큼 환경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는 점을 착안, 환경사랑을 실천해야 할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을 위한 행사로 자리잡고 있다. 역시 10년이상 이어져 온 여성교양강좌는 국악인 김준호, 손심심, 여행가 한비아, 방송인 김미경 등 유명인을 초청하여 문화예술에 대한 교양을 기르도록 진행되어 왔으며, 경남여성취미대회 역시 가사와 육아에만 매달리고 자신의 정서함양과 문화예술을 접하기 힘든 여성들에게 자신을 돌아보고 서예 실력도 가꾸고 확인하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 2007년 문화관광부 지역 메세나운동과 기업의 문화접대비 모범 사례로 소개된 적이 있을 만큼 도민프로축구단 지원에도 적극적이었으며 경남필하모닉오케스트라와 청각 장애우를 위한 희망의 소리찾기 수솔지원금 마련 음악회 개최는 물론 경남메세나협의회를 통해 결연한 경남필하모닉오케스트라를 적극 지원해왔다. 마산국악관현악단 지원, 경남수필이나 경남문학같은 문학단체의 문학지 발간후원과 마산연극제, 경남통영국제음악제, 경남오페라단지원등 다양한 문화행사지원까지 아끼지 않았다. 특정 문화예술단체나 스포츠단체가 아니라 지역의 각 단체에 골고루 지원한 이유는 미래를 생각하는 메세나활동이라면 특정한 지원은 상황에 따라 꾸준한 활동이 어려워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폭넓은 분야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같이 문화경영에 참여하고 향후 어떤 변동사항이 생기더라도 계속해서 메세나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았기 때문이다.

독서경영을 통한 창조적 문화경영 실천

무엇보다 독서경영을 통한 문화경영을 실천하는데 성공한 경남에너지(주)! 독서를 통한 간접 경험으로 보다 완벽한 서비스정신을 강조하고 직원들에게 책을 직접 나눠주는 등 집중적인 독서경영을 통해 서비스정신을 기르는데 애썼다. 경영진단실 이창수 계장은 이렇게 이야기했다.



| 대표이사 정연욱 |

“2005년 당시 이택수 부사장이 일본소설 <불씨>를 젊은 직원들에게 한권씩 나누어준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매주 1회 8개의 독서모임에서 각 10명이내의 대리급 직원들이 참여해서 토론하고 이야기 나누며 한달에 한권 같은 책을 읽고 독후감도 쓰고 발표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불씨, 소동, 에너지 버스, 연금술사, 토지, 남한산성을 비롯해 미스터 초밥왕, 만화삼국지 등 경제경영관련서적부터 소설과 만화에 이르기까지 변화와 서비스정신의 키워드가 있는 책을 장르에 구애받지 않고 읽어 왔습니다. 직원들 간에 혹은 고객을 응대할 때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독서에서 길러진 것 같아 뿌듯합니다.” 달마다 열리는 ‘열린 마음의 대화의 장’ 행사와 ‘독서토론회’ 역시 사원들의 마음을 모으는데 큰 역할을 했다. 가정의 가장 깊은 곳, 부엌까지 들어가는 일이 경남에너지(주)의 업무이고 그런 만큼 나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경험하는 교육이 필수이고 그 방법중 한가지로 찾은 것이 바로 독서경영이고 독서토론회인 것이다.

직원들의 자발적인 봉사활동

전 직원들의 자발적인 봉사활동도 아주 특이하다. 봉사활동때마다 모두가 참여할 수는 없지만 활동이후 사내네트워크를 통해서 서로 생생하게 이야기하면 자연스럽게 다음번에는 이번에 참여하지 못한 직원들이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된다고 한다. 또한 전 직원 대다수가 누구하나 빠짐 없이 골고루 각종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데는 업무자체의 성격때문이기도 할 것 같다. 남의 아픔을 이해하고 끌어안을 수 있을 때, 그 기쁨으로 자신을 감동시키고 만족시킬 수 있을 때 비로소 고객만족, 고객감동도 따라오는 것이니까말이다. 가스를 다루는 만큼 실수를 하면 사람이 다치니 긴장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평소에는 여유만만하고 부드럽게 회사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데 회사 곳곳에 걸린 그림들과 놓인 조각물 등 미술작품들이 유달리 많은 이유이기도 할 것이다.

직원들에게 독서경영을 통해 자신 아닌 상대방을 이해하는 법을 배우게 하고 봉사활동으로 사랑을 익혀서 고객들을 대할 때도 긴장을 늦추지 않게 하는 기업! 이렇게 지역의 문화와 예술을 위한 지원을 고루 안배하고 문화경영과 독서경영을 전 직원이 함께 녹여내는 경남에너지(주)는 메세나정신에 딱 맞는 기업이다.



창의상 창원서울이비인후과병원 (대표원장 정태기)

진작부터 지역에 소문이 자자한 특이한 병원이었다. 병원 3개층 벽면을 그림 전시공간으로 만들고 지역 미술단체인 '대안공간 마루'와 결연을 맺고 계속 새로운 그림을 걸게 해서 직원뿐만 아니라 병원을 찾는 환자와 가족들이 그림감상을 통한 문화 즐길 거리를 계속 제공해왔다. 지방의 힘은 지방의 문화발전에서 나온다는 생각과 예술작품이라 해도 한정된 전시공간에서 벗어나서 사람들이 쉽게 만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나올 때 더욱 그 가치를 발휘할 수 있다는 생각때문이었다.

2002년부터 이어진 만남으로 비영리 갤러리를 내세운 '대안공간 마루'는 서울이비인후과에서 제공한 후원금으로 신인작가 발굴이나 전시회를 꾸준히 할 수 있었다. 이러한 병원 갤러리와는 별도로 환자와 그 가족을 위해 경남짜즈오케스트라와 경남필하모닉오케스트라를 초청, 병원 로비에서 작은 음악회도 꾸준히 열고 있고 병원안 곳곳에

만여권의 책을 비치해 테마 있는 병원 만들기를 지향하고 있다.

특히 대안공간 마루에 소속된 화가들이 병원직원들에게 그림을 가르치는 그림교실은 직원들의 동아리활동을 활성화시켜서 작품 전시회도 갖는 등 직원들의 문화예술여가선용도 높은 수준에 이르게 하고 있다. 창의성이야말로 21세기의 원동력이라고 한다. **창의성을 바탕으로 의료활동을 하는 창원서울이비인후과병원은 메세나활동의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고 하겠다.**

지역문화공헌상 인산죽염촌(주) (대표이사 최은아)

함양의 인산죽염촌(주)가 경남메세나상 지역문화공헌상을 수상했다. 인산 김일훈선생이 최초로 발명한 죽염을 원료로 한 신한방의약품과 건강보조식품을 생산하는 지역기업인 인산죽염촌(주)는 기업의 성장과 함께 지역민들에게 문화예술을 향유할 기회를 제공했다. 지역의 특성상 자연환경은 수려하지만 문화예술의 혜택을 쉽게 받지 못하는 점을 감안, 지역민들과 인산죽염을 아는 전국의 사람들을 위해 2006년부터 함양삼림가곡제를 개최했다. 함양죽염축제와 함께 열리는 이 가곡제는 지난해는 특히 국제가곡제로 발전시켜서 해외에서 활동하는 성악가들을 초청, 자연이 만들어주는 환경의 아름다움을 배경으로 가곡의 아름다운 멋을 전국각지에 알리고 즐겼다.

인산가곡상을 제정해서 병환중인 바리톤 오현명교수가 기꺼이 상을 수상하러 오는 등 산골 오지에서 가곡제를 여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함양삼림을 알리고 가곡제를 관람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잊지 못할 문화체험을 제공하는데 큰 역할을 해 냈다.

가곡제와는 별도로 지리산 문학제를 비롯, 용추국제예술행사를 지원하고, 민사고등학교 가곡이야기 행사도 지원하는 등 지역의 문화예술지원도 꾸준히 해 오고 있는 인산죽염촌(주)의 활동은 특별하고도 소중한 메세나활동이라고 볼 수 있겠다.



'고객만족은 오감만족으로'



자연풍광에 가곡의 음율이 어우러진 지상천국

경남메세나인상 조성제(원광종합건설(주) 대표이사)

현 경남메세나협의회 이사이며 경남오페라단 운영이사, 경남짜즈 오케스트라이사를 맡고 있고 지역의 각종 문화예술단체에 꾸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특히 지난날 자신의 진로로 잡으려고 했던 사진분야에 관심이 높아서 사진작가활동을 기업활동과 병행하며 열정을 쏟고 있다. 특히 다시 시작한 사진작가활동은 환경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도 하다. 몇 년째 마산봉암갯벌을 촬영해서 환경회복을 통해 다시 날아든 새들과 회복된 자연환경을 사진집으로 만들고 전시회를 열기도 했다. 그 수익금은 물론 환경단체에 기부했고 주남저수지를 소재로 한 랍사르총회 기념특별전을 도립미술관에서 개최했고 지역신문에 매주 사진과 에세이를 실기도 하는 등 이채롭고도 독특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건설업 최상의 과제는 개발과 환경의 조화일 것이다. 그 과제를 같이 수행하는 조성제사장은 진정한 메세나인에 걸맞는 기업인이다.**



개발과 환경의 조화를 추구하는 진정한 메세나인



우리의 미래에 한표

경남은행 문화예술영재상 현예림



경기대학교에 재학중인 현예림양! 9살 때부터 연극을 시작해서 그동안 지역의 연극제에서 대상과 우수연기상을 받는 등 뛰어난 연기력을 보이는 연극영재이다. 국제연극제도 수시로 열리는 지역의 현황으로 볼 때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뻗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기대된다.



STX 문화예술영재상 남지원



어릴 때부터 풍물놀이에 뛰어났고 열두 살에 판소리에 입문, 고등학교 재학시절 판소리 관련 대회에서만 11회 수상하는 등 두각을 나타낸 남지원양! 지난해 4월에는 판소리 수궁가 완창 발표회를 여는 등 재능을 인정받은 판소리영재이다. 우리지역출신 판소리의 대가가 등장할 날도 머지 않았다.



청아의료재단과 경남프리모양상블은 경남메세나상 A&B상을 수상했다. 최재영 이사장은 “심사위원들께서 응소제의 중소병원에서 개원이래로 10년 이상을 꾸준히 음악회 및 인형극 공연 등을 통해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문화서비스활동을 한 점이 후한 평가를 받지 않았나하는 생각을 한다”라고 감사를 표했다.

“지역병원이니만큼 지역주민과 친근해지려면 문화예술활동이 가장 편안하게 다가설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때 후배인 프리모양상블 대표가 흔쾌히 응해줬고 단원들도 봉사하는 마음으로 도움을 줘서 지금까지 이어진 것”이라며 밝게 웃었다. “어려운 때를 맞아 메세나회원들 아무도 낙오됨이 없이 함께 오랫동안 동행하면 좋겠다”며 소망도 밝혔다.

마산 내서읍에 있는 청아의료재단은 금융위기때인 1997년, 최악의 의료환경에서 개원하여 지금까지 지리적인 한계를 넘어서며 지역의료활동을 제대로 해온 곳이다. 개원당시 주민들과 어울릴 방법을 연구하다가 문화예술공연을 생각하고 십여년 넘게 크고 작은 음악회와 인형극 공연 등 환자나 환자의 가족뿐만 아니라 지역민들도 같이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사업을 벌여왔다. 특히 경남프리모양상블 중창단과는 팀이 만들어질 당시인 1998년부터 현재까지 결연을 맺어오면서 각종 공연지원은 물론, 해마다 연말이면 한해도 빠짐없이 연말송년음악회를 열어서 연주기회를 제공하고 지역민들에게는 클래식성악곡을 즐길 기회를 만들었다. **중소병원에서 한 문화예술단체를 십여년 이상씩 지원하는 데는 매우 큰 노력이 필요할 것이므로, 메세나활동의 모범사례가 된다고 하겠다.**



오랜 친구처럼



우리가 잃어가는 것들을 위해



경남약사회와 경남시조시인협회의 상호 교류협력관계는 1996년부터 이어졌다. 경남약사회는 우리고유의 전통적인 시가인 시조의 질적 향상과 시조의 생활화를 위해 경남시조시인협회와 결연을 맺었으며 97년 이후 현재까지 경남시조문학상을 후원하고 있다.

이번 경남메세나상 A&B상을 수상한 소감을 경남 약사회 이병윤 회장은 이렇게 밝혔다. “작은 후원이지만 10년 넘게 변함없이 좋은 인연을 맺어온 사랑과 신뢰가 인정 받은 것”일 거라며 “자연과학도인 약사란 직업이 딱딱하고 피곤한 직업이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 않은 길인 인문과학을 동경하는 마음에서, 또 나누고 봉사하고자 마음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인연을 맺을 수 있었던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문학은 아프고 힘든 마음을 치료하는 약”이기도 하다면서 “앞으로도 처음 결연 맺을 당시와 같이 변함없이 함께 할 것”이며 시조문학의 저변확대를 위해 초중고 백일장 후원을 검토중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경남 약사회는 2000년도부터는 경남시조문학상 수상 작품을 우편엽서로 만들어서 배포하는 일에도 후원하고 있고 시조문학 지원을 통해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하는 약사로서의 자긍심을 높이는 데도 한몫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 지역문예인 발굴과 시조작가의 저변확대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메세나지원이 부족한 문학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한눈에 보는 2008년 경남메세나협의회 회원사들의 메세나 활동

지난 2008년 한해동안 회원사들이 예술단체와 함께 만들어 낸 '기업과 예술의 아름다운 동행'을 지면을 통해 함께 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가져본다.



경남스틸

경남스틸과 결연한 마산관악합주단의 아시아 태평양 관악제 참여 공연



경남약사회

[경남시조 사반세기] 및 [꽃씨들의 노래] 출판 기념회



경남은행

경남은행과 결연한 고성오광대는 전국단위 공연 뿐만 아니라 후진양성을 위한 전수 교육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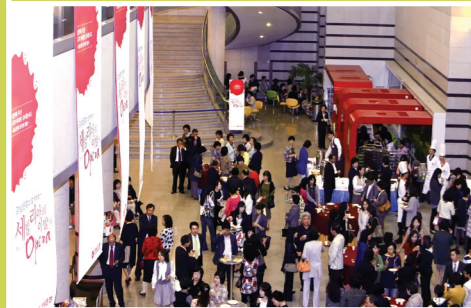


경남에너지

람사르 총회와 함께하는 가스안전 및 환경사랑 제12회 어린이 미술대회 개최

경남약사회

경남약사회가 12년간 후원한 경남시조문학상 시상식 장면



경남은행

경남은행과 결연한 경남오페라단의 '세빌리아의 이발사' 정기공연에 경남은행 고객 초청



경남에너지

경남에너지봉사단이 재가장애우와 함께한 도자기 체험



거제문화회관

경남메세나협의회와 함께 진행한 즐거운 나눔티켓



대경건설

대경건설과 결연한 USD현대무용단의 진주 차없는 거리에서 열린 거리공연



농협

한산도 염개 갯벌 체험축제 후원



경원여객자동차

경원여객자동차와 결연한 매성국악무용보존회의 연습장면



노키아TMC

2008 대한민국 정가축제 '조순자의 날' (노키아TMC와 결연한 가곡전수관 대표)



농협

지역축제 후원 한산대첩 개막공연 '부활'



경원여객자동차

경원여객자동차와 결연한 매성국악무용보존회가 비지땀을 흘리며 연습을 하고 있다.



노키아TMC

노키아TMC와 결연한 가곡전수관의 가곡전수학교 학생들의 가곡 합창



경양석유

경양석유와 결연한 실내악 전문단체인 경남챔버쓰사이어티의 연주 모습



대경건설

대경건설과 결연한 USD현대무용단의 게릴라공연



동환산업

동환산업과 결연한 극단 미소의 '오데로가꼬' 공연모습



동은화학

동은화학과 결연한 선 무용단은 2006년 창단하여 한국무용의 원형적 요소를 기반으로 현대에 맞는 창작예술로 승화하는 작업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

동은화학

동은화학과 결연한 선 무용단의 공연모습



(주)동환

(주)동환은 벨라미치예술단과 결연을 맺어 지역에 처음으로 뮤지컬 전문 공연단을 만들어 낸 계기를 마련했다



무림페이퍼

무림페이퍼와 진주챔버오케스트라의 새봄맞이 복지원 가족음악회



동인하이텍

동인하이텍이 지원한 국악실내악단 '휴의' '2008 소리 꿈길을 가다' 공연모습

동인하이텍이 지원한 국악실내악단 '휴의' 공연 모습



(주)동환

(주)동환과 결연한 벨라미치예술단의 경남메세나협의회 결연식 기념 축하공연 뮤지컬 '맘마미아' 갈라콘서트

무림페이퍼

진주챔버오케스트라와 결연한 무림페이퍼는 기업과 예술이 만나 더 큰 행복을 만들어 나간다는 슬로건으로 예술이 숨쉬는 기업, 행복이 가득한 기업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미조종합건설

미조종합건설과 결연한 한국연극협회거제지부의 '2008 거제세계희극축제' 공연 모습



북성산업

북성산업과 결연한 풍류춤연구소의 '우수 좋은 날' 공연



미래산업

미래산업과 결연한 창원원들의 전통설화를 마당극으로 재탄생시킨 '여의와황새' 공연



미조종합건설

좁고 배고픈 극단에 많은 금액보다 더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받았다고 "연극쟁이"들은 한 것 들며 있습니다. -한국연극협회거제지부



산골농장

산골농장과 결연한 지리산팍스오케스트라의 문화송년회



산골농장

농장주변의 멋진 환경을 테마공원형태로 조성해서 장미공원과 분재원, 조각공원 등을 꾸며놓아 방문하는 고객들에게 즐거움과 믿음을 선사. 지리산팍스오케스트라와 결연하여 올해에는 더욱 풍성한 5월의 장미축제를 준비 중에 있다.



미래산업

미래산업과 결연한 창원원들의 130명의 사물놀이



삼원테크

삼원테크와 결연한 숭대패사물놀이예술단의 '정월대보름공연'



북성산업

북성산업과 결연한 풍류춤연구소의 '2008 진주민속예술축전(진도북춤)'



삼원테크

삼원테크와 결연한 숭대패사물놀이예술단의 '판굿' 공연



일림나노텍

소프라노색스폰 신유식의
멋진 공연이 어우러진 문화송년회



일림나노텍

전직원 화합을 위한
문화송년회에서 솟대패의
사물놀이 공연 모습



삼흥열처리

삼흥열처리와 결연한 김해삼정걸림치기보존회의
동부경남 메세나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축하공연



삼흥열처리

삼흥열처리와 결연한 김해삼정걸림치기보존회
2008한국민속예술축제에서 금상 수상



원광종합건설

원광종합건설과 결연한
경남사진학술연구원의 '기획사진전'



신창기계

신창기계와 결연한 마산청소년관현악단의
'장애우과 시민을 위한 음악회'



원광종합건설

조성제 사장의 환경사진전



인산가

'인산가족 2008 송년의 밤' 뿌리 예술단의 전통 공연



인산가

인산가 건강수련원에서 펼쳐진
뿌리예술단의 전통무용공연



인산죽염촌

최근 김해필하모닉오케스트라와 결연하며
더욱 풍성한 인산국제가곡제 진행 예정



인산죽염촌

인산국제가곡제(함양상림)

상림공원 잔디마당에서 매년 9월 첫째 토요일 저녁 7시면 어김없이
아름다운 선율이 울려 퍼진다. 자연의 바람과 소리, 그리고 풍경과
어우러 지는 아름다운 감성으로의 여행에 젖어 든다.



장생도라지

장생도라지와 결연한 이상근기념사업회가
2008년 9월 경남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한 이상근 음악제
'힐청과 관현악의 밤' 공연 모습



장생도라지

장생도라지와 결연한
이상근기념사업회의 공연 모습



창원서울이비인후과병원

대안공간 마루와 결연하여 병원 갤러리를 통한 미술품 전시 및 병원실내 곳곳에 만 여권의 책을 비치해 테마가 있는 병원 만들기를 지향하고 있다.

창원서울이비인후과병원

매주 목요일에 결연단체 '대안공간 마루'의 화가들이 병원을 방문, 그림교실을 통해 회원들을 지도하고 정기적으로 회원들 작품 전시회도 갖는다.



포스아이

포스아이와 결연한 진해미술협회의 회원전



포스아이

포스아이와 결연한 진해미술협회의 전시회 (한 폭의 그림에 담긴 세상과의 만남으로 그림 속의 세계로 긴 여로를 떠난다)



청아병원

10년 넘게 이어진 병원음악회에 참여한 직원들의 장기자랑 모습



정남종합건설

남해 군민과 함께한 '찾아가는 공연'



청아병원

청아병원과 결연한 경남프리모앙상블의 병원음악회 모습



정남종합건설

정남종합건설과 함께하는 남해군 찾아가는 음악회 남해군민과 직원들이 함께 좋은 추억을 담아갔던 공연



화인테크놀로지

문화공연과 함께한 창사 10주년 기념행사 "역사는 계속된다"



흥일기업

흥일기업과 결연한 김해신포니에타는 전문 음악인들로 구성된 26명의 단원들이 참신한 프로그램으로 김해 지역 클래식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다.



화영

30주년 창립기념일 행사를 문화예술과 함께 결연단체인 밀양연극촌의 뮤지컬 공연



화인테크놀로지

송년의 밤 "수고하셨습니다"



STX엔진

창원호텔에서 주부특강 개최 (연극관람 및 케이크 만들기)



화영

창립기념일 행사에 아르카뎬버오케스트라의 연주 모습



STX조선

2008 사내 e스포츠 대회



STX조선

STX 전 임직원과 가족이 송년행사로 '호두까기인형' 발레를 관람



STX엔진

임직원 가족 및 시민을 대상으로 STX와 함께하는 경남 효잔치

아듀~ 2008

문·화·예·술·과·함·께·한

풍성한 **문화송년회**



경남메세나협회가 진행한 '문화송년회'가 큰 호응을 얻었다.

경양석유(주)는 마산3.15아트센터에서 직원들과 가족, 계열사 직원들도 함께한 송년 감사음악회를 진행했다. 또 (주)인산가는 뿌리에술단을 초청하여 전국에서 모인 회원들과 직원들에게 창작 무용을 선사했고, 산골농장은 지역민들과 직원들을 위한 멋진 '송년문화의 밤'을 열었다. 무림페이퍼의 중무식에는 메세나 결연을 맺은 진주챔버오케스트라가 음악을 선사했다. 이처럼 경남메세나협회를 통해 상호결연을 맺은 기업과 문화예술단체들이 꾸미는 문화송년회가 기존의 송년행사와 달리 전 직원과 가족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새로운 송년회 문화로 자리잡았다.

경양석유(주)



경남메세나회원사 중 가장 발 빠른 문화송년회였다. 경양석유(주)는 12월 4일 마산 3.15아트 센터 소극장에서 송년감사음악회를 가졌다.

이백여명의 직원들과 그 가족, 계열사 직원들도 함께 모여 식사와 다과를 즐긴 후 경남챔버쏘사이어티가 공연한 클래식음악들을 감상했다. **새로운 문화송년회 분위기에 직원들의 아내들이 가장 좋아했다는 후문이다. 하하하..** 아내의 즐거움은 곧 가정전체의 즐거움이니 직장의 즐거움으로도 이어지겠지?

STX조선(주)

12월 12일부터 14일까지 창원성산아트홀 대극장은 온통 STX 직원들 물결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해 뮤지컬<화성에서 꿈꾸다>관람으로 문화송년회를 치른 후 올해는 클래식 발레공연<호두까기인형>을 STX조선가족들은 물론 계열사 가족들까지 모두 관람하도록 문화송년회를 꾸미기 때문이다. 5회공연에 9천여명의 임직원과 그 가족들이 함께 했다. 정식명칭은 <STX그룹과 함께 하는 차이콥스키 명작 발레 호두까기 인형>!

국립발레단 최태지 단장은 "중앙에서도 공연을 1회정도 사 줄 정도지 이렇게 5회씩 사는 기업과 함께 하기는 처음인데 앞으로 더 많은 초청을 바라고 관객들의 호응도 서울이상"이라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사원가족으로 공연을 보러 온 위윤정(25)씨는 "발레공연은 처음 보는데 음악과 춤으로만 깨닫게 되는 내용들에 감동받았고 덕분에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보내게 될 것 같다"며 회사측에 감사의 말을 몇 번이고 되풀이해서 전했다.



경남에너지(주)



경남에너지(주)는 2008년 간부사원 워크숍을 12월 17일 창원 풀만호텔에서 열었다.

특별순서로 경남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클래식 연주를 선보였다. <나팔수의 휴일>과 <지선상의 아리아>, 또 <성자의 행진> 등 다양한 장르의 금관5중주를 들려주었는데 참석한 사원들은 신선한 경험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공연과 함께 각종 문화공연 초대권도 선물로 주어져 가족과 함께 문화를 즐기며 송년을 할 것을 권하는 자리기도 했다.

2009년 경남에너지(주)의 간부사원들, 어깨가 더 무거워질 것 같다. 하하하...



산골농장



12월 23일 산청의 지리산 자락 산골농장은 시골벽적 문화송년회를 가졌다.

농장안에 공연장을 꾸며서 <송년문화의 밤>행사를 연 것이다. 간디마을 촌장님이랑 갈전마을 이장님등 지역 어르신들도 초대한 자리였다. 어힘! 지리산 팜스 오케스트라가 30여분동안 클래식음악은 물론 캐롤과 팝송 메들리를 들려 주었고 10년 넘게 근무한 직원들 중 5명에게 감사패도 주며 치하한 시간에 이어 가수 나현재의 노래공연도 이어졌다. 그냥 갈 수 있나...직원들도 노래자랑을 멋들어지게 했다고 한다. 음식도 나누면서 두어 시간 동안 아주 떠들썩하게 산골농장의 2008년을 아쉬움 없이 보냈다.



(주)인산가



12월 19일 함양군 함양읍 죽림리 (주)인산가 인산연수원에서는 특별한 문화송년회가 열렸다.

뿌리예술단(이영희 단장)을 초청해서 무용공연으로 꾸몄기 때문이다. 전국에서 모인 이백여명의 회원들과 직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량무와 예기무, 장고춤과 판소리 등으로 꾸며진 1부공연과 2부는 '희망인산가'라는 제목의 퓨전창작무용예술극을 감상했다. 한시간여동안 진행된 공연을 본 지역민들과 (주)인산가 회원들은 일반 공연과는 달리 신비스러웠고 특히 퓨전창작무용예술극이 이곳 (주)인산가를 소재로 한 창작무용극이어서 신기했다는 반응이었다. 식품회사지만 국민의 건강증진이 이념인 (주)인산가의 모습을 잘 보여줬다는 관계자의 반응...



무림페이퍼(주)



진주의 대표기업인 무림페이퍼(주)는 2008년 마지막날에 7층 강당에서 문화송년회 행사를 개최했다.

130여명의 무림페이퍼(주)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월 결연을 맺은 진주 챔버오케스트라 17명의 단원들이 연주하는 아름다운 선율을 감상했다. 바흐나 비발디곡들을 연주로 감상한 후 대중가요인 '사랑을 위하여'를 참석한 전 직원들이 오케스트라 반주에 맞춰 합창하기도 했다. 김경래 공장장은 "공장에 올려 퍼지는 아름다운 클래식 선율로 2008년을 더욱 의미있게 마무리할 수 있게 됐다"며 웃음지었다고.

노래방 반주가 아니고 오케스트라 반주에 맞춰 가요를 부른 무림페이퍼(주) 직원들. 평생 처음하는 경험이었던...

청아병원



12월 22일 오후 7시, 중리 청아병원 1층 로비에서는 익숙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다. 청아병원 제12회 프리모 앙상블 초청 2008 병원 음악회! 이것이 이날 행사의 제목이다. 그러니까 문화송년회가 유행하기 훨씬 전부터 청아병원과 프리모 앙상블만의 송년음악회는 십년도 넘게 진행되어 왔다고 봐야지. 환자들과 그 가족, 이제는 소문이 나서 지역주민들도 알고 찾아와서 연말에는 꼭 청아병원에서 클래식 성악곡들을 들으며 문화생활을 즐긴다는...

아 참! 직원들도 꼭 장기자랑으로 무대에 선다. 청아의료재단 최재영 이사장의 자부심도 대단하다. 의료나 문화의 불모지에서 십여년동안 의료사업과 문화사업을 같이 병행해 온 일에 뿌듯함을 느낀다는 의미일 거다.



마산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

마산상공회의소는 1월 5일 오후 5시, 마산 사보이호텔에서 신년인사회를 가졌다.

지역의 상공인을 비롯, 기관단체 인사들과 학계, 사회봉사단체 회원들도 참석해서 서로 새해인사를 나누는 자리였다. 모듬북 합주공연이 인사회의의 시작을 알렸다. 솟대패사물놀이예술단의 모듬북 합주공연으로 대북의 울림을 통해서 새해에 기상을 살리고 큰 꿈을 꾸게 하도록 전통놀이로 마음을 다진 것이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새해정진을 다짐하는 자리인 신년인사회! 2009년 첫출발을 대북의 큰 울림으로 시작했으니 우리 지역 경제 대박 나겠조? 🙏



영화로 본 리·더·십

그림에는 무엇보다 사람 이야기가 담겨 있어 좋습니다. 빈부귀천,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다양한 인간 군상의 다채로운 이야기가 갖가지 이미지로 펼쳐집니다. 그 파노라마 가운데 리더들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멋지고 아름다운 삶인지 그들이 가르쳐주기 때문입니다. 명하는 리더들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그림 일단을 이 지면을 통해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리더십의 가장 핵심적인 덕목은 헌신이라고 합니다. 리더십은 본질적으로 지위가 아니라 헌신에서 나온다고 하지요. 헌신적인 리더는 구성원의 신뢰와 지지를 바탕으로 강한 리더십을 갖게 됩니다. 미술가들이 표현한 헌신적인 리더 가운데 미국화가 이매뉴얼 로이체가 그린 워싱턴의 모습만큼 인상적인 그림도 드뭅니다.

그림은 동 티오는 새벽, 워싱턴이 도강 작전을 감행하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델라웨어 강을 건너 벌인 트렌턴 전투는 미국 독립투쟁사에 길이 남을 영웅적인 전투입니다. 1776년 독립 선언 뒤 미국 혁명군은 영국군의 압박에 백을 못 추었습니다. 정예부대와 거리가 먼 혁명군은 도저히 영국군의 상대가 될 수 없었지요. 연전연패하다 마침내 델라웨어 강 건너로 내몰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사기를 잃지 않고 전의를 불태우던 혁명군은 워싱턴 장군의 지휘 아래 1776년 12월 25일 새벽 델라웨어 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뉴저지 트렌턴에 주둔해 있던 용병 부대를 급습해 900여 명을 포로로 잡고 트렌턴을 장악했지요. 이 승전보로 미국은 혁명의 승리에 대한 믿음을 더욱 확고히 다질 수 있었고,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각국도 강렬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화가는 기념비처럼 서서 강 건너를 바라보는 워싱턴을 그렸습니다. 그를 이상적인 리더로 표현하기 위한 것이지요. 앞장서서 위험을 감수하고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그린 것인데, 워싱턴은 진짜 것처럼 헌신적인 지휘관이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한 일화가 있습니다.

한 신사가 말을 타고 가다가 병사들이 큰 나무를 나르느라 애쓰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상사가 구령을 붙이고 있었지만, 병사들은 나무를 제대로 나르지 못했습니다. 힘에 부쳤던 거지요. 신사가 상사에게 물었습니다. “자네는 왜 같이 나무를 나르지 않는가?” 상사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줄병이 아니라 상사입니다. 지휘하는 게 내 일이지요.” 그러자 신사는 말에서 내려 병사들과 함께 나무를 날랐습니다. 힘써 나른 뒤 지친 몸으로 말에 올라 탄 신사는 상사에게 말했습니다. “이런 일이 또 있거든 주저 말고 총사령관을 부르세요.” 그때서야 상사는 그가 워싱턴 장군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워싱턴은

이주현 |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과를 졸업하고 언론사 문화부 미술 담당 기자, 『가나아트』 편집장을 거쳐 미술평론가로 활동하고 있다. 그동안 『50일 간의 유럽 미술관 체험 1, 2』 『내 마음속의 그림』 『미술로 보는 20세기』 『신화, 그림으로 읽기』 『이주현의 프랑스 미술 기행』 등 수많은 미술관련 저작을 발표 하였으며, 최근 미술 작품 속에서 창조적 사고의 비밀을 찾아보는 『리더를 위한 창의력 발전소』를 펴냈다.



로이체, 델라웨어 강을 건너는 워싱턴, 1851, 유화,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다비드, 테르모필라이의 레오니다스, 1814, 유화, 파리 루브르 박물관

이처럼 **진정한 리더란 헌신하고 솔선수범하는 사람이라 생각했습니다.** 아이를 무덤 태워 보이지 않던 구경거리를 보여주는 아버지처럼 헌신적인 리더는 이렇듯 조직원들의 영혼을 고무해 새로운 비전을 갖게 합니다.

헌신적인 리더가 얼마나 조직원들의 영혼을 강렬하게 고무하는지는 프랑스 화가 자크 루이 다비드의 <테르모필라이의 레오니다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 용맹한 군인들의 별거벗은 몸이 마치 단단한 암석들이 어우러진 것 같습니다. 지금 다가오는 적을 맞아 용감히 싸우겠다고 결의를 다지고 있습니다. 이들 인물 가운데 제일 눈에 띄는 것은 가운데 좌정한 레오니다스입니다. 레오니다스는 스파르타의 왕으로서, 페르시아 전쟁 당시 3백 명의 장갑 보병을 이끌고 수십만 명에 이르는 막강한 페르시아 대군과 맞서 싸웠던 사람입니다. 그와 그의 군대는 최후의 일인까지 적의 진격로인 테르모필라이를 막다가 전사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죽었지만 결국 전쟁의 승리는 그리스에게 돌아갔습니다. 레오니다스는 그 승리와 희생의 위대한 상징으로 역사에 영원히 남았습니다.

레오니다스는 진정으로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당시 엄청나게 많은 페르시아 육군에 맞서 육상에서 싸우는 것은 결과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결국 보급로를 놓고 해전에서 승부를 갈라야 하는데, 이는 해군력이 뛰어난 아테네가 맡아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육상 전투에 뛰어난 스파르타 군이 할 일은 어떻게 해서든 아테네가 해상전투에 제대로 임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는 일이었습니다. 최후의 일인까지 끝까지 저항하다 괴멸된다면 일각이라도 더 시간을 벌어줄 수 있겠지요. 레오니다스는 이 전투의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기에 자기와 함께 참전할 용사들을 모두 아들이 있는 사람으로 뽑았습니다. 한마디로 죽을 사람만 따라오라는 것이었지요. 어떻게 사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어떻게 죽느냐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레오니다스는 명분과 대의가 확실하자 주저 없이 죽음을

택했습니다. 지도자가 그렇게 자기희생의 과감한 결단을 내리자 조직의 사기는 하늘을 찌를 듯 올라갔습니다. 누구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와 함께 죽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했습니다. 지도자가 외롭다는 것은 언제나 이런 **‘사즉생(死即生)’의 갈을 가슴에 품고 다녀야 하기 때문이지요.** 그 사실을 알아도 이를 실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레오니다스가 오늘날까지 칭송되는 것은 이와 관련이 있겠지요. 그가 이렇게 희생해서 그리스 문명을 지키지 않았다면, 오늘날의 서양문명은 전혀 다른 문명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여론 조사기관인 갤럽에서 리더십과 직장 관리를 연구해온 마커스 버킹엄과 커트 코프만은 전 세계의 관리자 수만 명을 상대로 인터뷰한 결과 유능한 관리자들이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신념을 지니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 사람들은 별로 바뀌지 않는다.
- 사람들에게 없는 것을 갖추게 하느라 에너지를 소모하지 말라.
-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끌어내라.
- 그것으로 충분하다.

재미있는 것은 이들 유능한 관리자들이 타고난 것, 그래서 바꿀 수 없는 것, 보기에 따라서는 운명적으로 불공평해 보이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긍정적으로 본다는 사실입니다. 사물에는 양면성이 있으므로 부정적으로 보이는 그 배면에 긍정적인 것이 반드시 있으며 그걸 잘 살리면 개인과 조직에 모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이런 사실에 비춰 유능한 리더는 부하들에게 없는 것을 갖춰주려 애쓰는 사람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지니고 있는 것을 최대한으로 발휘하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진정으로 유능한 리더입니다.**

이런 훌륭한 리더를 만나는 것, 또 이런 훌륭한 리더가 되는 것, 우리 모두의 진정한 소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림을 보며 우리 안의 그런 잠재력을 다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

우리의 노래가
따뜻한 햇볕
한줌 될 수 있다면...

진해 제항산동에 있는 희망의 집!

12월 23일 저녁, 서른평 정도규모의 이층 작은 창에는 노란 종이커튼에 색색의 풍선들이 달려있다. 크리스마스 장식도 뿔을 내며 빛을 발한다. 쌀쌀한 날씨속 코 빨갱이 아이들은 기대에 찬 얼굴로 들떠 있다. 예술단원 모두가 부른 찬송가를 편곡한 곡과 캐럴 메들리로 공연이 시작되었다.

'벨라미치란 '아름다운 친구들'이란 뜻이란다. <오페라의 유령>에 나오는 곡 ALL I ASK OF YOU!. 그리고 뮤지컬 <지킬과 하이드>의 한 장면속 노래! 노래가 끝나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브라보를 외쳐댔다. 참, 아이들이란! 이번 공연은 대부분 뮤지컬에 나오는 노래였는데 어떤 상황에서 부르는지 알기 쉽게 설명해가며 공연을 진행했다. 수수께끼도 내고 선물도 쥐 가며 말이다.

상큼한 복장과 양중맞은 안무, 발랄한 노래에 아이들이 즐거워했고 가장 큰 박수와 환호가 터졌다. 고양이 가면을 쓴 여자단원 두명이 무대에 올랐다. 가사는 '미야옹'뿐! 고양이울음소리같은 노래와 행동을 본뜬 안무는 웃음을 주었고 반복되는 가락이라 따라 부르는 아이들도 많았다. 뮤지컬 남태평양에 나오는 노래는 깜찍하고 재미있는 가사와 안무가 분위기를 고조시켰고 모두들 폭소를 터뜨렸다.

희망의 집 생일날 함께 했던 벨라미치예술단 공연! 벨라미치 단장은 "아이들 코드에 맞을까 걱정했는데 제법 큰 고등학생도 있고 호응도 너무 좋아서 고맙고 공연을 통해 상처가 조금이라도 치유되고 사랑받는 사람이 되길 기원한다"며 원장님께 후원금도 전달했다. 어쩐지 코끝 시큰한 장면...

그리고 뮤지컬 <맘마미아>공연이 이어졌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선생님들도 신이 나서 소리 지르고 박수를 치며 공연과 하나가 되어갔다. 단원들은 땀으로 범벅되고 거친 숨을 내쉬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이었다.

얼어붙은 경기속에서 경남메세나협회의 회원인 (주)동환과 벨라미치예술단이 마련한 진해 희망의 집 공연! 따뜻함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공연이었다.

해방이후 만들어진 '희망의 집!' 3대째 운영되고 있는 결손가정 아동들을 위한 양육시설이다. 이전에는 먹고 입는 것이 힘들었지만 요즘은 아이들 내면에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일이 무엇보다 어렵다고 한다.

"이런 공연 자주 했으면 좋겠고 자기도 언니 오빠들처럼 노래하고 춤춰서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싶다"는 서나희(희망의 집, 12)어린이! 이런 공연을 통해 아이들은 자신들에게 사회가 갖고 있는 사랑과 관심을 확인하며 웃음 짓고 희망과 꿈을 갖게 된단다. 아, 진짜, 이런 공연, 맨날 맨날 하면 안되나...



경남메세나협회의 회원들의 예술의 희망이야기는 일년 내내 이어져왔다. 지난 11월 8일에는 신창기계와 마산청소년관현악단이 함께 한국최고의 테너 김영환을 초청, <장애우와 시민을 위한 사랑나눔음악회>를 마산 3.15아트센터에서 열었다. 특별출연한 테너 김영환씨는 사람들 가슴속에 더 커다란 울림을 주었다. 아름답고 훌륭한 노래도 물론 최고였지만 그가 사랑을 나눌 줄 아는 연주자인 것을 가슴으로 확인해서이다. 한국 최고의 테너가수인만큼 이런 기회를 가진다는 것이 얼마나 큰 결심과 다른 일에 대한 희생이 필요한지 짐작할 수 있으니 말이다. 그래! 진정한 예술의 가장 밑바닥에 흐르는 건 역시 타인에 대한 사랑이구나...유난히 그의 노래가 아름답게 들리고 후광마저 느껴졌다. 주고 받는 자 모두의 마음을 너무도 잘 알고 부르고 들은 노래기 때문이겠지.

그리고 경남 해림학교의 장애인 중창단이 출연해서 악단과 협연을 했다. 아-, '사랑 나눔'이란 말의 의미를 마음 깊이 느낀 순간! '장애인은 보통 사람과 다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했던가! 그들이 노래하는 모습을 보며 눈물 머금었던 사람들은 오직 하나만 떠올렸다. '너희들의 노래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야! 너희들은 천사야! 장애대신 너희가 가진 재능은 그 어떤 것보다 훌륭해! 함께 했던 장애우들과 시민들 모두 먹먹해진 가슴을 쓸어내려야했다.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무기는 사랑이다. 전쟁도 끝내고 말싸움도 화해시키고 인종이나 종교의 차이, 빈부의 격차, 모든 문제들을 녹여버리는 것이 사랑 말고 또 있을지 모르겠다.

경남메세나협회의 활동 중 가장 사랑이 넘쳐나는 것이 바로 소외된 이웃들을 찾아가서 공연으로 위로하고 혹은 티켓을 나누면서 마음도 건네는 바로 이런 활동들이다. 우리의 노래가 이 땅위에서 따뜻한 햇볕 한줌 될 수 있다면, 우리의 춤이 아픈 이웃들에게 웃음 한 줄기 선물할 수 있다면 그 이상 무엇이 더 필요할까. 경남메세나협회의 회원들이 세상을 향해 보내는 사랑의 메시지, 예술의 희망이야기는 2009년에도 계속될 것이다.



새로이 손에 손 잡고



(주)세진 경남지점(대표 김장원)과 대한전통예술보존회 경남지회(대표 손양희)

(주)세진 경남지점은 함안에 있는 중소기업으로 석유류와 가스 도·소매업을 하는 기업이다. 평소 국악분야에 남다른 관심을 보이던 김장원 대표는 몇 년 전부터 지역의 관련행사를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왔다.

협약을 맺은 대한전통예술보존회 경남지회는 전통음악의 계승발전과 전문국악인을 양성하기 위해 1992년 창단되었으며 현재까지 유럽과 남미, 아시아 등 해외순회공연을 비롯해 전여회 넘는 공연활동을 해왔다. 특히 1996년부터 지난해까지 12회에 걸쳐 전국국악경연대회를 열고 전문국악인을 발굴양성하는 것은 물론이고 경남지역 전통음악 발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단체이다.



(주)미래산업(대표 정재훈)과 창원 큰들(대표 전민규)



(주)미래산업은 1996년 설립, 휴대용기기 기구들의 도장사업을 중심으로 세계최고의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기술연구소를 통해 새로운 기술과 차별성있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런 가치와 기술력을 인정받아 2000년에는 노키아 핀란드 본사로부터 최고협력사상을 받기도 한 역량 있는 기업으로 경남메세나협회 창립회원으로 지역메세나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이전부터도 지역의 문화예술활동에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번에 협약을 맺은 창원 큰들은 진주의 큰들문화예술센터와 함께 민족문화를 현대정서에 맞게 재창조하고 마당극과 풍물놀이 등 문화예술공연을 비롯해서

전통문화연구와 보급활동, 노래공연 등 다양한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종합문화예술단체이다. 연간 100여회의 초청공연을 하는 등 그 규모가 커서 협약이후 앞으로의 활동이 더 기대된다하겠다.



인산죽염촌(주)대표 최은아와 김해필하모닉 오케스트라(대표 임해옥)



인산죽염촌(주)는 인산 김일훈선생이 세계최초로 발명한 죽염을 주 원료로 해서 각종 신한방의약품과 건강보조식품을 생산·판매하는 함양에 있는 중소기업이다.

경남메세나창립회원으로 2006년부터 해마다 함양상림숲에서 인산가곡제를 열어 지역민과 인근지역 문화예술애호가들, 그리고 전국각지에서 찾아든 회원들에게 자연과 어우러진 수준있고 특색있는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활발한 메세나활동을 벌이고 있다. 협약을 맺은 김해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노동부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을 통해 기악에 소질있는 30명의 단원들로 구성된 단체이다.

2008년 7월에 결성된 이후 장애우들을 위한 복지공연을 시작으로 김해시 찾아가는 음악회 등

크고 작은 공연으로 지역문화예술발전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결연기업과 함께 앞으로 더 활발한 활동과 지역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흙의 순수함처럼

마산 공설운동장안에 있는 한국미술협회 경상남도지회 사무실! 을씨년스러운 분위기의 콘크리트 복도를 지나며 약간 움츠러 들었지만 사무실에 들어서니 말쑥한 웃음으로 맞는 성낙우 지회장(57)이 있어 금방 편안해진다. 검은색 위아래 수트 분위기의 단정하면서도 목도리까지 검은색으로 제대로 멋을 낸 옷차림에서 성 지회장의 스타일을 짐작할 수 있다. 언뜻 드러나지 않지만 보면 불수룩 화려한 색 코드 블랙! 외모보다는 훨씬 소탈하고 달변인 말솜씨에 자꾸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한국미술협회 경남지회는 회원들의 규모가 숫자면에서는 해가 갈수록 줄어들지만 국전에서 특선작가도 해마다 배출되고 있는 만큼 그 활동은 적지 않다는 것이 성 지회장 이야기의 결론이다. 16개지부를 산하에 두고 있는 한국미술협회 경남지회는 약 1500여명의 회원들이 있다. 물론, 미술활동을 한다고

해서 다 협회에 드는 것은 아니니 실제로 작가들은 더 많을 것으로 짐작한다. 그 많은 작가들이 저마다 무엇을 표현하고 있을까?

얼마 전까지 건축물마다 조형물 장식이 대세였지만 앞으로는 그림을 건다거나 외벽에 그림을 그리는 벽화 쪽 작업이 활발해질 것 같다고 궁금증을 앞서서 풀어준다. 조형물보다는 색채 디자인쪽으로 도시의 특성을 살리는 방향의 작업들이 많이 나올 것이라는 거다. 언뜻 듣기에는 장밋빛 청사진 같지만, 지역의 미술인중 전업 작가는 많지 않다. 농사를 짓거나 생계유지를 위해 다른 작업을 갖기도 하고 화실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는데 그 이유는 간단하다. 미술작품을 팔아서는 생계유지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아 이러니 하게도 해마다 배출되는 신진작가들은 많은데 그 이유는 지역의 미술학과가 십여개가 넘고 또 그림으로 취미활동을 하던 주부들이



빛의 성곽(성낙우 작)

응모전을 통과해서 주부작가들이 양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덕분에 선후배간의 도타운 정 같은 분위기가 사라지고 미술계의 구도가 달라졌다고 한다. 하긴,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대체 무엇일까. 성 지회장이 지난해 가장 신경을 썼던 사업은 18년만에 경남미술협회원을 개최한 것이었다. 말이 쉬워서 회원전이지 전시장소와 책자 인쇄 등 예산이 적게 드는 행사가 아닌지라 그동안 할 수 없었지만 마산의 3.15아트센터개관에 힘입어서 장소가 해결되었고 시 지원도 만만찮게 받아 이루어졌다고 한다. 올해에도 계획중이고 전남과 경남의 작가들이 서로 작품을 교류 전시하는 동서미술전은 꾸준히 치르고 있다.

성 지회장이 말하는 지역의 미술시장이란 이렇다.

‘그리는 사람이 있으면 알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사주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일반사람들은 아직도 그림은 좋다면서도 돈 주고 사라고 하면 도망간다.’

미술에 대한 제대로 된 관심이 부족하고 기업들도 아직은 미술을 비생산적으로 보는 것이 문제다. 그렇지만 미술만큼 우리 생활속에 깊숙이 자리잡고 있는 것이 또 있으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모든 분야는 다 미술의 영역이니 말이다.

2002년도쯤에 마산미협에서 경찰청 벽에 그림을 걸어 정서순화에 큰 효과를 본 적이 있었다고 한다. 이처럼 기업과 미술계의 상호작용으로 서로가 윈윈 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이를테면 각 지역미술협회회원들의 작품을 회사인팸에 장식하고 그 댓가로 각종 전시회의 스폰서가 되어준다면 더 이상 좋은 방법은 없을 거라는 성 지회장의 제안이다. (주)경남에너지의 미술실기대회개최도 이전에 미협인사 한분이 건의한 것으로, 미술에 대해 지역민들이 관심을 갖게 해 주는 행사로 자부하고 있다. 요즘 많이 열리는 아트페어전은 우리 경남에서도 그림 가격을 매기는 작업이 부족해서 그렇지, 시장성은 충분하다고 본다. 경상남도에서 인터넷 경매를 추진중이란 이야기도 슬쩍 흘린다.

성낙우 지회장은 흙을 만지는 작가다. 흙은 살아있는 유기물이고 만져지고 밟히는 대로 그대로인 순수성이 매력이라고 역설한다. 물론 원래대로 돌아가려는 기억력이 있다. 그래서 정성을 얼마나 들이느냐에 따라 시간이 지나면서 변형되는 정도가 또 다른 작품성을 띄게 해준다고, 참, 신기하다. 말로 설명할 수 없다. 청자의 경우 중국은 옥색청자이고 일본은 침색(쑤색)청자이지만 한국은 비색청자로 어디에도 비교할 수 없는 청색을 띄는데 이것 역시 흙의 변형을 잘 이용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흙에 관한 이야기가 끝없이 이어진다. 흙에 대한 성회장의 애정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든다. 작가들에게 작품의 경제성이나 그런 의견을 묻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일은 아닐까! 그저 작가는 순수한 흙처럼 작품을 그리고 만들 뿐이고 또 감상의 기회를 제공할 뿐이고, 알아주는 사람과 사 주는 사람은 적어도 작가 외의 사람들, 그 가치를 높이 보고 즐거워하며 좋아해 줄 줄 알고 그 작품의 경제적인 환산이 가능한 사람들의 몫이 아닐까 하는... 성 지회장의 흙처럼 순수한 생각이 지역기업들에게 제대로 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뿐이다. 🐦



성낙우 Sung, Nak-Woo

- 대구가톨릭 대학원 졸업
- 개인전 7회
- 마산미협 회원전 및 현대도에 100인 초대전
- 대한민국 아트페스티벌 초대전
- 대한민국 미술대전, 경남도전 등 다수 심사위원역임

- 현, 한국미협 경남도지회장, 심곡도예원 운영

■ 기업과 예술의 만남(Arts & Business) 결연 사업

✓ 기업과 예술의 전략적 파트너십 지원 프로그램

기업과 문화예술단체간의 결연을 통해 강기적이고 전략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기업에는 창조적 문화를 심고, 문화예술계는 안정된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생 프로그램

- 예술단체는 결연기업에 대해 사내공연, 공연(전시)초대, 기업홍보, 복지시설공연공동주최, 문화예술 교육 등 지원
- 2008년 12월 현재 29개팀 결연 / 768백만원 지원(경남도매칭펀드 지원금 270백만원 포함)

2008 경남 중소기업예술지원 매칭 펀드 사업

중소기업의 예술지원 참여 동기부여를 위하여 경남도와 공동 추진

2008년도 경남도지원금 총액 : 22팀 270백만원

기업의 예술지원 확대에 공공예산의 2배 효과

기업과 예술의 만남 결연 현황 : 총 29개팀 결연

2007 / 10	경남스틸(주)	마산관악합주단
	경남은행	경남오페라단 / 고성오광대보존회
	(주)노키아티엠씨	가곡전수관
	동환산업(주)	극단 미소
2008 / 01	마산청아병원	경남프리모양상블
	삼원테크(주)	숏대패사물놀이예술단
	창원서울이비인후과병원	대안공간 마루
	STX조선(주)	경남팝스오케스트라 / 아르끼챔버오케스트라
	무림페이퍼(주)	진주챔버오케스트라
2008 / 04	경원여객자동차(주)	매성국악무용보존회
	대경건설(주)	USD현대무용단
	(주)장생도라지	이상근기념사업회
2008 / 10	(주)동은화학	선무용단
	삼흥열처리	김해삼정결립치기보존회
	홍일기업(주)	김해신포니에타
	경남에너지(주)	경남필하모닉오케스트라
	경양석유(주)	경남첼리스트사이어티
	(주)동환	벨라미지예술단
	미조종합건설(주)	한국연극협회거제지부
	(주)복성산업	풍류출연구소
2008 / 12	산골농장	지리산팝스오케스트라
	신창기계	마산청소년관현악단
	원광종합건설(주)	경남사진학술연구원
	(주)포스아이	진해미술협회
	(주)미래산업	창원관현
(주)세진 경남지점	대한전통예술보존회 경남지회	
인산죽염촌(주)	김해필하모닉 오케스트라	

■ 회원사 협력사업

✓ 회원사를 위한 작은 공연

- 기업의 문화송년회 등 회원사를 위한 문화서비스 지원 프로그램
- 2008년 총 14개사 공연 실시

✓ 2008 문화공감 예술의 향연

- 도내 문화예술회관 우수공연 티켓을 회원사 대표에게 제공함으로써 좋은 문화예술 체험 기회제공

✓ 회원사의 예술단체 지정기탁금(지정기부금) 처리 - 12건, 74백만원

■ 문화나눔사업

✓ 찾아가는 메세나(사랑의 국악연주회)

- 도내 소재 노인, 장애인 복지관 방문 공연
- 2008. 06. 16 : 의령, 김해 / 230명 관람
- 2008. 06. 19 : 마산, 창원 / 260명 관람

✓ 아동양육시설 어린이를 위한 '즐거운 나눔티켓'

- 도내 양육 시설 어린이에게 즐겁고 유익한 공연 관람 기회 제공(총 1,050명 관람)
- 2008. 01. 19 ~ 20 : 창원성산아트홀 <뽀로로와 요슬램프> / 150명 관람
- 2008. 01. 25 ~ 26 : 경남문화예술회관 <오즈의 마법사> / 100명 관람
- 2008. 08. 15 ~ 17 : 거제문화예술회관 <하루이야기> 등 / 400명 관람
- 2008. 08. 29 ~ 30 : 마산 3·15 아트센터 <소나기> / 400여명 관람

■ 메세나 시상 사업

✓ '2008 경남메세나상' 시행

- 메세나를 통해 아름다운 사회공헌을 실천하고, 지역경제와 문화예술의 균형발전에 헌신한 기업과 개인 등을 발굴하여 공로를 시상
- 부 문 : 기업(기업출연 재단 포함)부문, 개인 부문, Art & Business 부문, 문화예술영재 부문

✓ 2008 경남메세나대회 개최(12월 4일)

- 메세나 활동으로 아름다운 사회공헌을 실천한 기업과 문화예술계가 만나는 축제의 장
- 진행내용 : 메세나갤러리(회원기업들의 메세나 활동 사진 전시) / 메세나 활동소개 영상물 상영 / 특강(미술평론가 이주현) / 기업과 예술의 만남 결연식 / 경남메세나상 시상식 / 축하공연 / 만찬
- 시상내역 : 대상(STX조선) / 문화경영상(경남에너지) / 창의상(창원서울이비인후과병원) / 지역문화공헌상(인산죽염촌) / 메세나인상(조성제-원광종합건설 대표이사) Arts&Business상(청아의료재단-경남프리모양상블) & (경남약사회-경남시조시인협회) 경남은행 문화예술영재상(연극 현예림) / STX 문화예술영재상(판소리 남지원)

■ 연구및 홍보사업

✓ 메세나 기법 개발 및 메세나 활동 홍보를 통해 메세나의 빠른 정착과 확산 도모

✓ <경남 메세나> 발간

- 2008년 5월 창간호 발간(1,500 부) / 2008년 11월 제2호 발간(2,000부)
- 유관기관 / 도내 대기업, 중견기업 / 회원사 / 예술단체 등에 배부
- 구성내용 : 기업과 예술단체 결연활동소개, 문화마케팅사례소개, 메세나칼럼 등

✓ 문화마케팅 전략 세미나

- 2008. 10. 07 / 창립 2주년 기념, 기업과 예술의 만남 결연식과 동시 개최 : 문화경영과 문화리더십(주)인터컬처 대표이사 남정숙 강사)
- 2008. 12. 04 / 경남메세나대회와 동시 개최 : ceo를 위한 미술과 창의력의 세계(이주현 미술평론가)

✓ 기획위원회 운영

- 구 성 : 협의회 임원진 회원사, 결연회원사, 기타 추천 회원사의 실무진들로 구성(약 50여명)
- 운영방안 : 협의회 사업방향 및 사업내용에 대한 의견 수렴 / 메세나 활동 사례 교류 등

✓ 문화경영 도서보급

- 2회(달리서스샌드위치 / 리더를 위한 창의력 발전소) 630권의 문화경영 관련 도서를 회원기업에 배부

✓ 경남메세나협의회 및 회원사 활동 홍보

- 신문, 방송 등 총 100여회 이상의 메세나 활동과 결연기업 홍보

✓ 협의회 홈페이지 구축(www.gnmecenat.or.kr)

- 회원사 메세나 활동 및 예술단체 소개 코너 마련

■ ■ 신규회원 모집

- ✓ 2008년 총 39개사 신규가입
- ✓ 2008. 12. 31 현재 회원수 : 156명

■ ■ 사업성과평가

✓ 국내 유일의 지역 메세나협의회

- 지역 소재 메세나협회로 유일하게 활발한 활동을 함으로써 문화도시 경남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
 - 현재 국내에는 한국메세나협회(서울 소재)가 1994년 설립하여 현재까지 활동 중임
- 지역내 메세나 운동 참여 분위기 확산
 - 도내 전 지역, 다양한 업종의 회원기업(총 156개)이 참여하여 도 전역에 메세나 활동 확산
 - 도내기업의 문화경영 및 문화마케팅에 대한 인식 제고

✓ 도내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창작활동 지원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 : 총 9억여원

- 기업과 문화예술단체간 결연을 통한 문화예술 지원
 - 총 29개팀 결연, 768백만원 지원(매칭펀드 도 지원금 270백만원 포함)
- 기업의 지정기탁금(예술단체에 대한 협찬금 등)
 - 메세나협회를 통한 기탁으로 지정기부금 처리(기업의 세제혜택)
 - 2008. 12. 31 현재 12건/74백만원 지정 기탁
- 다양한 사업추진을 통한 문화예술단체 지원
 - 회원사를 위한 찾아가는 공연, 문화나눔 사업, 문화공감 등

✓ 문화예술에 대한 잠재적 수요 확충

- 기업과 결연한 예술단체는 기업 사내공연, 정기공연에 초청 등의 교류협력 활동 진행
- 약 1만여명의 회원사 임직원에게 문화예술 감상 기회 제공
- 도내 회원사 임직원 및 가족 등 총 6만여명의 잠재적 문화예술 수요자 확보

✓ 문화나눔 사업으로 도민의 문화복지 향상

- 1,600여명의 노인,장애인,청소년에게 문화예술 향유기회 제공
 - 찾아가는 메세나 : 도내 소재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방문 국악공연 (4개지역 각1회, 총 참여인원 500여명)
 - 즐거운 나눔티켓 : 아동양육시설 어린이 및 장애우 대상 공연 관람기회 제공 (4개지역 각1회, 총 참여인원 1,100여명)

문화예술과 함께 하는 회사창립기념일,
 신입사원연수에서의 문화공연,
 생각만 해도 근사하지 않습니까!
 경남메세나협의회가
 행복과 감동의 시간을 만들어 드립니다.



2009 회원사를 위한 공연

회원사를 위한 문화서비스의 일환으로 회사내 각종 행사시 직원 및 직원가족을 위해 문화공연을 제공해 드립니다.
 회원사로 직접 찾아가 클래식, 팝음악, 전통예술, 연극 등 아름답고 재미있는 공연을 만들어드립니다.

- ◆ 실 시 기 간 : 2009년 연중상시
- ◆ 대 상 : 회원사 직원, 직원가족 및 고객
- ◆ 신 청 방 법 : 참가신청서 1부 제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
- ◆ 공 연 비 지 원 : 회원사별 연간 1회에 한해 공연비용의 50%(100만원 한도)를 경남메세나협의회가 지원
- ◆ 프로그램 예시 (회원사 요청에 따라 프로그램 구성 가능)

행사 내용	구성	대상	구성 내용
창립 기념일	공연	전 직원	◇ 신나는 대북공연 ◇ 전자현악 3중주 공연 ◇ 유명 뮤지컬 하이라이트 공연
신입사원 환영회	공연	신입사원	◇ 세대 공감 퓨전 국악 공연 ◇ 미니 역할극 공연 ◇ 비보이 / 힙합 공연
점심 시간	미니 콘서트	전 직원	◇ 퓨전 실내악 공연 ◇ 해설이 있는 음악회 ◇ 보컬과 색소폰의 재즈 공연
꿈나무 사랑 행사	공연 / 미술 행사	직원 자녀 (어린이)	◇ 인형극 공연 ◇ 사회자와 함께 하는 음악 레크리에이션 ◇ 미술 프로그램 구성
부모 사랑 행사	공연	직원 부모님	◇ 신나는 대금 한마당 공연 ◇ 민요 가락 한마당 공연 ◇ 풍물 한마당 공연
문화송년(신년)회	공연	직원 및 가족	◇ 신나는 크리스마스 캐롤 연주 ◇ 추억의 팝과 영화음악 연주 ◇ 퓨전국악 공연



USD현대무용단의 2008년 정기공연 '느린 시간' 대경건설(주)의 후원을 통해 캐나다에서 함께 작업해오던 현대음악 작곡가를 초빙해 보다 실험적이고 파격적인 무대를 꿈꿀 수 있었던 공연이었다.

기업과 문화예술의 아름다운 동행

메세나란

기업들이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을 통해 사회에 공헌하고 국가경쟁력에 이바지하는 활동.

메세나의 어원

문화예술가들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로마제국의 정치가 마에케나스(Caius Cilinius Maecenas)의 인명에서 유래
1967년 미국의 기업예술후원회가 발족하면서 기업의 문화예술에 대한 각종 지원 및 후원 활동을 통칭.